

現代文明의 趨向(1)

韓稚振

一, 文明의 源泉

現實의 原因은 那邊에 있는가? 왜 이것은 이로코 저것은 저럴가? 現實의 存在는 偶然인가? 必然인가? 今日의 文明이란 것은 왜 잇스며 쏘는 엇더케 되었스며 되어 잇는가?

文明은 宇宙의 生命活動의 外的 表現이다. 그러나 그 生命活動과 그 外的 表現과의 關係는 엇더하며 그 表現의 限定은 如何한가? 獨逸의 『스팽글너』가튼 有機的 明觀論者들은 文明은 一個 生物과 가티 生産期에서 老死하기까지 그 內在的 精力의 容量의 껏까지 發表하고는 凝結固定하여 死滅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文明의 現狀을 그러케 一個 生物에 比較할 수 잇슬가? 換問하면 一種의 文明은 幼, 壯, 老라는 三期를 通하면서 成熟하고는 그것을 一期라하고 아조 消滅하는 것이 事實이라할가?

以上の 問題로 對答하기 爲하여 文明의 源泉을 二種으로 分見할 必要가 있다. 하나는 情的 源泉이요, 다른 하나는 理的 源泉이다. 爲先 文明이 情에서 基本하고 發生하였스면 그것은 一個 生物과 가티 許如한 一期만을 살며 꽃피다가는 沒落할 터이지만은 萬一 그 文明이 理性에서 發生한 것이면 永生할 可能性이 있다한다. 왜 그러냐하면 大概 文明이란 것은 時代를 잘아 無常히 變遷하면서 새롭게 아저야만 그것이 刷新하여 沒落을 免할 수 잇는데 情的 文明은 그러케 變遷하는 性質이 微弱한 까닭에 終末의 沒落을 免할 수 업는 것이다. 그와 反對로 理性的 文明은 스스로 變遷하기도 쉽고 傳達식히 기도 쉬운 것이다. 그는 理性 그 自體가 一定한 限界를 破壞하고 超越하는 性質인 새문이다.

이럼으로 文明의 源泉이 情과 感에 드는 새에는 그 文明은 植物처럼 一定한 環境의 供給하는 影響에 依하여 終末에는 消滅이 된다. 이러한 文明은 能動的이 못되고 執着的 文明이기 새문에 『스팽글너』의 全 文張과 가티 沒落하고야 만다. 하지만은 理性에 그 쩌리를 둔 文明은 動物과 가티 여긔저긔에 彷徨하면서 自己의 食物을 마음대로 求하나니 그 生活의 □圍가 植物에 比하

야 魂心 自由롭고 多方面인 것을 알 수 있다. 生活의 機會가 □만함을 짚아서 其 長生期는 一定한 有限이 업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理性은 無智沒覺 가튼 것을 理解하여 活路의 답을 破開한다. 罣으러지고 罣킨 것을 解除하고 그 中에 公正과 一致를 나아놓는다. 絶□을 除却한다. 出入이 쉽고도 갖게 되어 新陳代謝하기에 答易한 것이다. 하지만은 偏心, 偏感은 絶隔을 만들어 노움으로 來終에는 그 所有自心에서 곱팡이 쓸고 陳□落滅이 생기여 不己한다. 오늘날 科學의 文明은 적어도 그 頑向에 잇서서는 私感和 偏見을 除去하고 公通, 公平을 爲主하는 것이 그 根的 性質인가한다. 이 根本的 性質을 保障하는 째에는 科學的 文明은 반다시 그 自體에서 生起는 永久的 新陳代謝에 依하여 永久히 延長할 수 있다. 이것은 必然的이다.